

[오늘의 성가] 시작: 337 봉헌: 511 성체: 501 파견: 77



생명을 주는 영

김기홍 베르나르도 신부 | 부산교구 당감본당 신부

요한 복음서는 4 대 복음서 중 가장 늦게 기록된 것으로써 이미 기록된 3 개의 복음서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선택하여 순서를 정하고, 하나의 명상록으로 엮은 복음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를 묻기 전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려는 것인가를 찾고,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빵의 기적을 하신 후 당신을 찾는 백성에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요한 6, 27)고 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요한 6, 48)라고 하십니다. 또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 51)라고 하십니다. 백성은 현세적인 빵과 영적인 당신 살과 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사가는 빵의 기적의 의미인 성체성사, 즉 성찬의 의미를 여러 측면에서 조명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인 성체성사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참뜻을 알리고자 예수님은 만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요한 13, 14~15)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사가는 성찬을 먹고 마시는 일로 끝내지 말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처럼 일상의 삶 안에서 성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쓰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찬의 참된 의미가 신앙인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요한 6, 63)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은 육의 일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육은 자기 자신만 보고, 현세적·이기적인 삶을 지칭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육은 잘 먹고 편하고 출세하여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신 예수님처럼 열려있는 삶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자기 주변을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주변에 생명의 기쁨이 샘솟게 하면서 삶에 활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위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요한 3, 3 참조)이요, 하느님과 이웃 간에 교감을 갖는 신앙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느님이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연옥에서 벌을 받고 난 후에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느님이 자비로운 분이시라면 우리를 굳이 무서운 연옥 벌을 받게 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흑인 노예에게 해방을 선포하지만, 자유의 상징인 선거권을 주는 것은 망설입니다. 그래서 보좌관 한 명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에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다리라고 여기기로 합니다. 그러면 말의 다리는 총 몇 개입니까?” 보좌관이 “5 개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링컨은 말합니다. “틀렸소. 말의 다리는 4 개요. 꼬리가 정말 다리가 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꼬리를 다리라고 부르더라도 꼬리일 뿐이요.” 링컨은 아무리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하더라도 노예가 참으로 변화하여 자유인이 되기 전에는 노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실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연옥은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벌이기보다는 오히려 구원을 위한 변화와 정화의 기회이며, 하느님 배려이자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화와 정화는 고통이 따릅니다. 따라서 구원의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 고통(요한 16, 21~22)으로, 베드로 사도는 금이 되기 위한 불의 제련으로(1 베드 1, 6~7) 이야기합니다. 성장과 완성을 위한 연옥의 불은 파괴와 멸망을 위한 지옥의 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도 연옥이라는 정화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직장·노동사목 담당 / 권순호 신부(부산교구 남산성당 부주임)

† 공지사항

1. 미사 후 지하에서 공동체 식사가 있습니다. 이번 식사는 1 구역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 공동체 식사가 끝나고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 각 구역장님, 성모위원님 참석 부탁드립니다.
3. 9월 독서, 간식 및 청소는 학부 구역입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오래 전 보좌신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례를 위한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이 근처 시장에서 신발 가게를 합니다. 여기 성당에 신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성당에 다니게 되면 신자들이 우리 가게에서 신발 하나라도 더 사주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루하루 예비자 교리를 받으면서 제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런 내 욕심을 채우려는 부정함 마음으로 성당에 왔는데, 제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형제님을 신발을 통해서 부르신 것 같은데요. 신발을 많이 팔기 위해 성당에 오게 된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님께서 성당에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진정한 주님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좋은 신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 후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분은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사람들을 당신께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참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기쁨과 풍족함,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한껏 누리면서 사는 삶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 삶의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길과 안전한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길을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요? “나는 길이다.”라고 하신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찾고 그분을 따라만 가면 될 것입니다. 한동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기적에 열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가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알아보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성당에 다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기적을 보고, 빵을 보며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한 유혹이 많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